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욕심

얼마 전에 어느 장로와 골프를 쳤다. 그런데 그 장로가 세계적인 골퍼인 최경주 씨가 사용하던 골프채를 들고 왔다. 그것을 본 내가 “돈 많은 장로라 다르네. 그렇게 귀한 골프채를 들고 오다니.” 했더니, 그 장로가 “목사님, 이거 안 비싸요, 5만원입니다. 그나마 오늘 쳐보고 잘 안 맞으면 돌려줄 겁니다.” 하는 거다. 그 말에 내가 “장로가 그러면 되나? 사업을 하는 장로가 5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사야지.”라고 했다. 그러자 그 장로 말이 대단했다. “목사님, 5만원이 아니라 만 원짜리라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것은 욕심이지요.”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역시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달라 다르구나.’ 생각했고, 그 날 내 일기장에 그의 말을 그대로 적었다.

오래 전에 일본 집회를 갔다가 백화점에 들렀다. 그 때 영상카메라며 오디오 제품들이 전시된 전자코너를 둘러보는데, 우리 땅끝 예수전도단 회원인 미오시상이 내게 뭐든 사드릴 테니 고르라고 했다. 그 때 내가 한 말이 있다. “나는 지금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달라는 것은 욕심이야.” 그는 내 말에 은혜를 받았고, 그 후에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다.

욕심은 욕심 욕(慾)에 바랄 망(望)으로, 만족함을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고, 탐욕은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다. 그 결과야 뻔한 것이 아닌가.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딤후6:6). 남의 떡이 크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떡에 감사하면 욕심은 사라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을 정돈한다. 우리 장로 말대로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점검하며 내려놓는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욕심을 버리면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21세기 멸망은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자.

지난 3월 29일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가 입당예배를 드렸다. 총회장 목사님은 태안교회 담임 국승봉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태안교회를 오는 길에 평택에서 일을 보고 갈비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맛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눈길을 끄는 건 시종 환하게 웃는 주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인이 시종 웃으며 서빙을 해주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 습니다. 잠언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 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

11:30)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다들 스펙을 쌓는다고 난리지만, 스펙 중의 스펙은 웃는 얼굴입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제일교포인 양미자 권사가 한 끼에 12만 엔(120만원)이나 하는 ‘행락원’이라는 일본 전통음식점을 예약해놨는데 지불취소가 안 된다기에 어쩔 수 없이 간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총지배인에게 ‘이 음식점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웃음을 잃은 종업원을 자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락원이 왜 최고의 음식점이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럼요, 국 목사와 사모가 이 동네

를 다닐 때도, 성도들을 만날 때도 항상 반기며 웃음 띤 얼굴이 되면 많은 사람이 따를 것이고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 뿐 아니라 밥장사를 하든, 옷 장사를 하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얼굴은 열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 감정이 얼굴에 실립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얼굴에 사나운 기운이 없고 광채가 날 것입니다(전8:1). 또한 사람의 감정을 건들이지 말고 감동을 시키는 것이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감동은 느낄 감(感)과 움직일 동(動)으로 이루어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2016년 3월 29일)

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개척시절에 동네 아이들 코를 다 닦아주며 다녔답니다. 또 복덕방에 계시는 노인들께 자주 먹을 거라도 들고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입소문이 나서 오늘의 대형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그 핵심을 읽고 사랑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감동되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드신 성도는 부모님처럼, 아이들은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대하고,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분명히 감동이 넘칠 것입니다.

국 목사는 잘 익은 김치처럼 숙성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조금 오랜 기간 기도원에서 묵했더니 영·혼·육에 숙성이 잘 됐습니다. 잘 숙성된 고기나 음식은 아주 맛있어서 누구나 좋아하듯 국 목사도 누구나 좋아하는 목사, 맛있는 목사가 되었으니 이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가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태안교회를 통해 태안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의 창립멤버들



입당예배에 참석한 교단 목회자 및 장로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4:12~21)

왜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했나?

예수의 부활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게 잡혀 옥에 갇히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 일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날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들 문중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4:18).

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랬을까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마1:21). 그런데 성경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요17:11)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권세를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주셨습니다. 전권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의 것들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2:9~10).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꺼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와 바울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오시면 더불어 그 예수의 권능도 우리

에게 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집사들이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고, 앓은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각색 병을 고치는 것은 이초석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너는 못 쫓아’ 그러는 겁니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그래, 나는 못 쫓아. 그러나 너 예수 알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 몸에서 나가!” 했더니 바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앓은병을 일으키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나음을 받은 이

유가 이것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행4:7~10).

예수 이름을 소유한 당신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리고 이초석 목사처럼 권능을 행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곧 포도나무입니다. 내 팔이 나 아납니까? 내 팔이 몸에 붙어 있으면 곧 나뭇,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천사를 명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의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

포도나무 가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포도나무에서 공급된 영양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듯,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령을 쫓고, 예수

물 떠난 고기는 벌레밥이 되고 만다

이름으로 가난과 고통을 쫓는 것이며, 또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썰감도 안 됩니다.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총알이 장전된 총일지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호랑이는 고사하고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돈도 주머니에 있을 때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돈을 사용해야 돈의 권세가 나타나듯, 예수 이름을 소유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야 예수 이름이 나가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소 새끼는 소이고,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들 이 질문에 입을 다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신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10:35). 그러니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머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14:26).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사도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을 직접 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행4:16). 그들은 ‘유명한 표적’, 즉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미문에 있던 앓은병이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두려웠고(행3:1~10), 또한 그것이 소문나면 결국 그들이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시인해야 했기에 그들은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를 건질 사명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 전쟁의 위험이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5차에 걸쳐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열었고, 금년에는 니스웨 성처럼 기도원 강아지도 급식에 동참시키며, 교단 대부분의 성도가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금식했다. 이젠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맞보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죄와 악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미가 선지자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유다를 향해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를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7~8).

이렇게 변화된 삶을 보시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다. 수 없는 예배와 기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시기 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했고, 예루살렘에 진실된 의인 한명이 없어 멸망했다. 그 곳에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었다(렘5:1~2). 시편 15편에도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나아오는 자에게 시편 기자는 물으신다. ‘하나

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일까? 예배드리러 오는 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일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함(삶)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다(약2:17).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

평화 통일의 길을 앞당기려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나부터 하면 된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몰고 오듯, 우리의 작은 변화가 나라를 건지는 멋진 날개 짓이 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이시대 목사

가치 기준이 된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셨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왕상15:3).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 대한 선악간의 기준은 바로 다윗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사 그 후손에게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그 기준으로 다윗을 삼으시고 그들의 선악을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다윗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재산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시119:56).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알고 있었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삼고 목동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은 정직한 예배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렸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온 마음을 온전히 드린 예배자로 존재했다. 그 후손들의 입장에선 자기의 조상 다윗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마1:1)?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되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 순종하는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는 자가 되자.

이구원 목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에세이::

:생명의 말씀:

바지에 껌 묻었어요!

아들아!

언젠가 지교회 입당예배를 가던 중 망향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쉬면서 호떡을 하나 사먹었다. 네 누이 초현 전도사와 운전해주는 김 집사랑 셋이서 말이다. 나는 옆에 자리가 있기에 무심결에 앉아 호떡을 맛있게 먹고 일어났는데 네 누이가 그러는 거야. 바지에 껌이 묻었다고. 참 난감하더구나. 입당예배를 가는 길인데 모양새가 빠질 위기였단다. 그러자 김 집사가 휴게소 매점에 가서 물티슈를 사다가 바지에 껌을 다 떼어줬단다.

작은 사건이지만 생각에 잠기게 하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지. 만일 네 누이나 김 집사가 없었다면, 나는 뒤에 껌이 붙은 줄도 모르고 예배장소에 가서 망신을 당했을 게야. 나는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이지.

왜 하나님은 뒤를 볼 수 없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건 내가 볼 수 없는 곳을 봐주고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주위 사람을 만들라는 뜻이 아닐까? 충고요, 훈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솔직히 충고나 훈계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니? 아첨인 줄 알지만 좋은 말이나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들아!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 아니? 밥 사주는 친구가 아니란다. 너의 단점을 가감없이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너의 뒤 자태를 너 대신 봐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

성경에는 충고를 들어 성공한 자가 있는가 하면, 껌이 붙었다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서 창피를 당하고 망한 자가 있단다. 다윗이 전자라면 사울과 르호보암이 후자에 속하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잠19:20). 사람들은 ‘도둑이 들라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하지. 그러나 왜 도둑이 들었는데 개가 안 짖었겠니? 다만 주인의 귀가 막혀서 못 들은 게야. 충언은 곧 쓴 소리란다. 이 쓴 소리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나는 네가 자존심을 뺏으면서도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길 바란다. 아무나 떠는 친구를 버리고 너를 위해 쓴소리를 하는 친구 말이다. 껌 묻은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으려면.

朋友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인생을 살다보면 갖가지 문제들은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지나침 때문에 온다. 질병도 지나치게 잘 먹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살과의 전쟁, 비만, 그리고 각종 성인병 또한 지나치게 먹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마음의 비만 역시 끝없는 욕심, 만족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하면 석유 왕, 록펠러를 생각하게 된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다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설 때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을 봤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속에 전율이 일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으니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울면서 입원을 애원하고 있었다. 록펠러는 곧 비

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다. 얼마 후, 그가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뻐던지 그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한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깨끗해졌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다. 나중에 록펠러는 그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고 하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고 하심을 기억하고, 주면서 살기로 작정했으면 한다.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물질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등... 우리 모두 나누고 주는 삶을 살자.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귀를 빌려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친구에게서 카톡이 옵니다. 또 무슨 고민이 있나 보군, 이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를 만나고 고민을 듣는 사이, 어느새 제 기준으로 친구를 판단하고, 어설픔게 충고하고, 잔소리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왜 때때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왜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끈대처럼 말하고 맙니다. 이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귀를 빌려주라”,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루는 어느 성도가 상담하러 왔는데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더랍니다. 이야기를 듣다 지친 목사님은 그의 말을 중간에 끊고 그에게 필요한 조언과 성경구절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 틈을 얻지 못해 결국 그의 고민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마지막에야 겨우 말할 차례가 와서 기뻐하며 성도에게 지혜의 말씀을 한 마디 해주려던 순간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 주셨어요.” 그 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조언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 줄 귀였다는 걸요. 가만히 상대방의 고충을 들어주는 일만 하고, 멋진 조언을 하는 일은 하나

님께 맡겨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사실 정신과 치료의 첫 시작도 상담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것뿐이라고. 그리고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하나하나 그저 들어주시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치유를 받고 크고 놀라운 비밀까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가만히 들어주지 못한 걸까? 아마도 마음의 교만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너보다 잘 살고 있어, 이러한 마음의 교만이 상대방의 고민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르치고 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교만인지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 정신질환 하나씩은 갖고 있다지요. 맞아요, 웬만한 정신력으로 버티기 힘든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서 말하는 능력보다 들어주는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힘내’라는 말이나 ‘이렇게 해봐’라는 충고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판단은 잠시 접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귀를 빌려주세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피 건강, 몸 건강!

건강한 피가 몸속에 잘 돌아야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기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태어날 때에는 누구나 맑은 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규칙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점점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어 피가 탁해지게 된다. 이렇게 피가 탁해진 경우 한의학에서는 어혈(瘀血), 담음(痰飲)이 혈액 내에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독소를 배출해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가 탁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손발이 자주 저리다
2. 피곤하고 자주 어지럽다
3. 생리불순, 생리통, 기미가 생긴다
4.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또한 혈액이 탁해지면 혈관에 노폐물을 침전시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동맥경화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될 경우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이 뇌혈관에 생기면 ‘뇌경색’이 되고, 관상동맥경화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어느 날 문득 가슴이 찢기는 듯한 통증이나 아찔한 어지럼증을 경험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내 몸의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피는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아야 한다. 탁해진 피를 맑게 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푼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각종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
2.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지방과 당류를 비롯한 혈액 내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3. 식단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저칼로리 식단위주로 야채와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만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쌓이지 않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

가정에서 복용이 가능한 한방차로는 당귀차, 천궁차가 있으며 체내의 탁한 피를 배출시키고 부족한 피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하루에 4~8그램 정도 복용하고, 피가 더욱 탁해지지 않도록 고민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혈액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참된 깨달음::

한 획의 기적

한 획의 기적을 아십니까?

‘고질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불가능이라는 뜻의 단어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으면 가능하다는 ‘I’m possible’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보면 ‘빛’이 되고요, ‘Dream is nowhere’(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가 띄어쓰기 하나로 ‘Dream is now here’(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힘을 불어넣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어두움이 빛으로 변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듯, 작은 생각의 변화가 큰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찍은 점 하나가 의미와 목적을 바꾸듯, 무심코 바꾼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 않지만, 새처럼 날 수는 없지만,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으로 코끼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새보다 멀리 날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불가능하다는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왔습니다. 묵은 지경을 갈고 씨를 뿌리듯, 묵은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9),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생각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세요. 머지않아 긍정의 열매, 희망의 열매, 성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기적의 점! 어디에 찍으시겠습니까?

예수중심편집실

Good News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중국 최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차지한 그는 북방에 만리장성을 쌓고, 호화로운 대명사가 된 아방궁을 지었으며, 거대한 왕릉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수천 명의 동남동녀들을 배에 태워서 불로초를 찾아 나서게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유사 이래로 불로장생에 관한 민간요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호랑이의 고환을 먹었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젊은이의 피를 마시거나 그 피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로장생에 집착하

던 진시황제는 순행 길에 나섰다가 50세의 나이에 객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곧 바로 거대한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불로장생의 약제들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했고, 높게 쌓아올린 성벽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며 부귀영화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9:27).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며 영원한 삶을 꿈꾸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누리며, 그 분은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